

헌장개정위원회, 공청회 통해 헌장개정안 공개

교직자 이혼 시 자동파직 완화... 산하기관 임원 임기 단축
참석자들 다양한 의견 제시, 일부항목은 의견 일치 하기도

지난해 9월 헌장개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목사·이하 헌개위)의 출범 후 7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온 헌장개정안이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공개됐다.

헌개위는 지난 4월 27일 성결대학교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고 그간 진행되어 온 개정안을 이날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헌장개정에 대한 목회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위원장 유선호牧사는 “헌개위 개정 37가지 원칙인 기존 헌장유지 및 필수항목 개정과, 교단의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정체성에 기본을 두고 미래지향적 제도와 틀의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준비된 자료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요 쟁점 사항 중 6개 항목은 축소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만 나이 제도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교단



헌장개정 공청회

정년’에 대해서 ‘만 70세인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농어촌교회나 미지립교회 목회자만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갔으나 ‘만 나이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69세 364일 24시까지로 한다”를 개정된 나이에 맞게 ‘71세 하루 전날 까지를 정년’으로

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총무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 총무의 직을 비정기적인 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성도가 높은 준비된 후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 교단은 사실상 총무정치다. 임원회에 참석해 발언권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단축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개진됐다. “타 기관과 다르게 학교는 특수기관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가 하면 “교단과 사학 정관과 대치되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기관장의 힘이 약해져 운영에 힘이 든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목사의 사무정년에 대해서는 현행 만 70세 정년에 예외 조항을 두고 “미지립교회로서 교회가 원할 경우 매년 사무연회 2/3 찬성과 지방회 허락으로 최장 5년간 담임목사 목회사역만 가능토록 예외조항을 뒀다.

▲‘원로들의 대의원권’에 대해서는 지방회 정회원과 총회대의원권을 제한키로 하고 5년간 유예한다는 헌개위의 설명이 있었다. 한 참석자는 유예기간을



회관건립 공청회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며 원로들의 대의원권은 사실상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직자 이혼문제도 거론됐다. 기본적으로 이혼은 허용되지 않으나 시대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밖에 총회주관 목사인수식, 세례교인비 신설, 행정재판

위원회 신설과 같은 중요현안도 관심의 대상으로 정리됐다

이날 논의된 의견들은 헌장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의견의 적절성과 여론의 추이를 점검한 후, 법제부에 이관되어 15일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오는 22일 총회 석상에서 처리된다.

총회회관건립 급물살, 건립추진위 세가지 안 제시

서대문교회 부지 신축 새롭게 떠올라, 여론 수렴 후 결정

총회사중복음회관건립위원회위원장 김윤석 목사·이하 회관건립위) 공청회가 헌장개정공청회가 개최되는 지난 7일 성결대학교에서 함께 있었다.

회관건립위는 조직 구성 후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 미팅 등을 통해 꾸준히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조사해왔다. 교단의 미래를 세우는 일인 만큼 막중한 사명 앞에서 신중을 기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립위는 3가지 사항의 건립계획안을 제시하고 향후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해 최종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중복음회관건립 공청회를 진행한 위원장 김윤석 목사는 현 총회본부 건물 재건축과 서대문교회 부지에 신축, 강서구 공항대로(염창동) 소재 빌딩 매입 등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설명회를 이어갔다.



현 총회본부 위치에 재건축할 경우의 사중복음회관 조감도

1. 현 총회본부 부지에 재건축

첫 번째 안으로 현 총회부지에 재건축하는 안으로 이미 송덕준 총회장 재직 시 추진되며 설계와 조감도 까지 제작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 2층, 지상 3층 정도의 규모로 연면적 1,983㎡(600평)로 건축할 수 있으며 총회가 소유한 대지에 건축하므로 비용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 총회본부 인근이 서울성곽 주변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추진 당시만 해도 2차례에 걸쳐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모두 반려되기도 했었다. 이밖에도 접근성과 주차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되었다.

2. 서대문교회 부지에 신축



서대문교회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두 번째 안으로 제시된 것은 현 서대문교회 부지에 신축하는 안으로 서대문교회 측에서 제시해 온 안이다. 교회가 위치한 부근이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며 좁은 위치에 1,851㎡(560평)의 대지를 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예정이다. 이곳에 서대문교회는 대지를 제공하고 총회는 건축을 함께해 공동으로 소유 하자는 제안이다. 이곳에 건축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건축할 수 있으며 총회와 서대문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위치적인 여건이 우리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성결교회 요람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도보로 2분 거리에 영남 김응조 목사의 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공원도 잘 조성되

어 있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참석자들은 서대문교회 부지에 재건축이 가장 큰 메리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토지 지분과 수익금 배분에 대해 검토의 요지가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됐다.

3. 강서구 공항대로(염창동) 건물 건

마지막 세 번째 안은 기존에 이미 건축되어진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노원사중복음회관 매입시 함께 매물로 언급되었던 건물이다. 강서구 공항대로(염창동)659 소재, 도레미빌딩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8,485㎡(2,566평)로 이미 완공되어진 건물로 바로 입주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적정한 매입가격과 가압류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난제다.



도레미 빌딩 전경

제102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102회기 주제 “성결인이여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

헌장 제93조에 의거하여 제102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대의원 및 대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바라며 교단 산하 모든 교회는
성 총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5월 22일(월) 오후 1시
- 장 소 :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 대강당
- 문 의 : 총회 사무국(070-7132-0010, 0011)

● 총회 기도제목

1. 교단의 비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2. 거룩한 총회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현파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102회 정기총회 일정표

■기간 : 2023년 5월 22일(월)~23일(화) ■주제 :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

시간	월요일	화요일
7:00~8:00		아침 : 지방회 주관
8:00~9:00		송회 ③출석체크
9:00~10:00		전통위원장선출
10:00~11:00	준비위원회 점심식사(성결대)	각부 전령
11:00~12:00	기수단 대기	각부 전령 발표 / 각부 조직 구성 / 각부 조직 발표
12:00~13:00	개회예배 ①출석체크	청원서 및 건의안 접수 보고 / 청원서 및 건의안 수리 / 101회 총회 경과보고
13:00~14:00	기수단 입장(각지방회 소개)	점심(성결대)
14:00~15:00	대의원자격심리 / 개회선언 / 회순통과	점심(성결대)
15:00~16:00	헌장개정안 처리	송회
16:00~17:00	임원선거 ②출석체크	각부 심의 / 각부 결의 보고 / 제102회기 총회 예산안 심의
17:00~18:00	산하임원교배	제102회기 산하기관 이사, 감사 집행부서 교재선임의 대한 위임
18:00~19:00	신임 임원 취임식	기타토의
19:00~20:00	신임 총회장 취임식	차기 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
20:00~21:00	지목식사(성결대)	회의록 채택
21:00~22:00	지목식사(성결대)	배회 선언
22:00~23:00	117차 연차대회 (아나운서 원기범)	배회예배 ④출석체크
23:00~24:00	은퇴목사, 장로 등단(중앙총회장 기도)	복사 안수식(총회 주관)
	다음세대 등단(은퇴목사 축복 기도)	
	존노, 김민성 찬양 / 비전 선포식	
	지방회 주관 숙소로	

117 연차대회 및 제102회 총회 총회주일

5월 14일 21일

제102회 총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합시다

모든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엡 1:21~22)

송금계좌 농협 001-01-327850(예성총회)